

#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Dwelling Environmental Planning in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고 경 필  
Ko, Gyeong Pil  
윤 재 웅  
Yoon, Jae Woong

---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dwelling environmental planning in old age of middle ag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332.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

1. In housing plan of old age, they prefer new house that is not existing house, independent house and ordindry housing region in the suburbs of urban.
2. It is 69.3~99 square meter what size of house is suitable for independent life of aged person for living with childern, it is 102.3~132 square meter.
3. In the stage of independent or semi-independent life, they want aged couple-independent life. In the stage of dependent life, they want to be cared with children.
4. The garden(madang) is the most important space for age couple in establishing housing plan. They want to amplity life recuperation center and job providing facilities. In old age housing project, they prefer housing type with facility that combine old age house with young age house. According to increasement of dependence, the service support system required flexi-care-system.

---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평균 수명의 연장, 사망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구문제에 있어서 인구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르는 자원의 한계가 문제 이듯이, 노인인구의 증가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대책이 문제가 된다.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은 대부분이 노화로 인한 그들 나름의 독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따라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적응, 정년퇴직과 경제적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 자기 동년배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등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옥선화, 1995).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별거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의 정도에 적합한 주거나 시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시설의 계획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미래 고령화 사회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주거의 개발은 그간 우리 나라 주거개발 및 발전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시행착오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21세기 지향적이면서도 한국적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설정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노인주거의 모델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노인주거 시설에 대한 계획은 소극적인 해결에 지나지 않으며, 기존시설로는 노년기를 맞이할 중년층이 만족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분야인 노인주택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년기 주거계획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중년층이 희망하는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의존단계별 노후의 생활계획,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택규모 및 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노년기<sup>1)</sup>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법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의존단계별 노후의 생활계획, 노년층의 계획주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95년 4월 11일부터 4월 21일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유료노인 복지시설 입소대상자(제13조)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대상자(제19조)를 60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므로 본고에서 노인은 60세 이상인자로 함.

까지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500부의 설문지 중에서 337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최종 332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을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여가 각각 54.0%, 46.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노인생활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40대가 55.1%, 30대가 38%, 50대가 6.9%로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이 51.1%, 대졸이 30.9%로 고졸이상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는 불교가 68.1%, 직업은 공무원(20.2%), 회사원(24.2%), 상업(18.3%)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이상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항은 부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동거가족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3.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 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77	54.0
	여	151	46.0
연 령	30대	126	38.0
	40대	183	55.1
	50대	23	6.9
학 력	중졸이하	59	18.0
	고 졸	167	51.1
	대 졸	101	30.9
종 교	기독교	73	24.7
	불 교	201	68.1
	기 타	21	7.1
직 업	공무원	65	20.2
	회사원	78	24.2
	상 업	59	18.3
	전문직	17	5.3
	기 타	103	32.0
월평균소득	70만원 이하	41	13.0
	71~100만원	66	21.0
	101만원 이상	208	66.0
가족사항	3 세대	62	18.9
	2 세대	265	80.8
	기 타	1	0.3
주거유형	단독주택	130	39.5
	연립주택	22	6.7
	아 파트	177	53.8

\* 각 표본의 합계는 무응답에 의해 차이가 있다.

2.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은 노후의 주택계획, 노후의 희망하는 주택유형,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과 노후의 주거환경 조성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1) 노후의 주택계획

노후의 주택계획은 연령과 주거유형이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3.14%)이 여성(66%) 보다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더 원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78.40%), 40대(67.40%), 50대(47.83%)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현 주택보다는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는 대졸(76.77%), 고졸(66.67%), 중졸이하(64.41%)의 순으로, 종교는 기독교(76.06%)가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비슷한 비율로 새로운 주택을 원하였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의 주택 계획

		노후의 주택 계획			χ <sup>2</sup>
		기존의 주택 그대로	기존의 주택을 수정·보완	새로운 주택에서	
성별	남	23(13.14)	24(13.71)	128(73.14)	2.289
	여	22(14.67)	29(19.33)	99(66.00)	
연령	30대	7(5.60)	20(16.00)	98(78.40)	15.292
	40대	32(17.68)	27(14.92)	122(67.40)	
	50대	6(26.09)	6(26.09)	11(47.83)	
학력	중졸이하	15(25.42)	6(10.17)	38(64.41)	11.789
	고졸	19(11.45)	33(19.88)	114(68.67)	
	대졸	10(10.10)	13(13.13)	76(76.77)	
종교	기독교	6(8.45)	11(15.49)	54(76.06)	11.789
	불교	29(14.50)	34(17.00)	137(68.50)	
	기타	4(19.05)	5(23.81)	12(57.14)	
직업	공무원	12(18.75)	8(12.50)	44(68.75)	11.396
	회사원	3(3.90)	15(19.48)	59(76.62)	
	상업	9(15.25)	7(11.86)	43(72.88)	
	전문직기타	1(5.88)	4(23.53)	12(70.59)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9(21.95)	6(14.63)	26(63.41)	3.527
	70~100만원	6(9.23)	10(15.38)	49(75.38)	
	100만원이상	28(13.59)	33(16.02)	145(70.39)	
가족사항	3세대	12(19.35)	13(20.97)	37(59.68)	5.029
	2세대	31(11.83)	39(14.89)	192(73.28)	
	기타	0(0.00)	0(0.00)	1(10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25(19.38)	25(7.65)	79(61.24)	9.677*
	연립주택	1(4.55)	3(13.64)	18(81.82)	
	아파트	19(10.80)	24(13.64)	133(75.57)	
전체계		45(13.7)	53(16.1)	231(70.2)	

\* p<.05

월평균소득은 70~100만원(75.38%), 가족사항은 2세대 동거가족(73.28%), 주거유형은

집합주택인 연립주택(81.82%)과 아파트(75.57%)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노후의 주택계획을 새로운 주택에서 계획하기를 원했다 <표 2>.

2) 노후의 희망주택 유형

노후의 희망 주택유형에서는 주거유형만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의 희망 주택유형

		노후의 희망주택 유형			χ <sup>2</sup>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성별	남	140(79.10)	9(5.80)	28(15.82)	4.491
	여	107(70.86)	6(3.97)	28(25.17)	
연령	30대	92(73.02)	7(5.56)	27(21.43)	1.905
	40대	140(76.50)	8(4.37)	35(19.19)	
	50대	19(82.61)	0(0.00)	4(17.39)	
학력	중졸이하	49(83.05)	4(6.78)	6(10.17)	5.205
	고졸	122(73.05)	8(4.79)	37(22.16)	
	대졸	76(75.25)	3(2.97)	22(21.78)	
종교	기독교	57(78.08)	3(4.11)	13(17.81)	2.855
	불교	153(76.12)	10(4.98)	38(18.91)	
	기타	13(61.90)	1(4.76)	7(33.33)	
직업	공무원	47(72.31)	2(3.08)	16(24.62)	7.701
	회사원	63(80.77)	6(7.69)	9(11.54)	
	상업	43(72.88)	2(3.39)	14(23.73)	
	전문직기타	14(82.35)	0(0.00)	3(17.65)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30(73.17)	3(7.32)	8(19.81)	2.707
	70~100만원	48(72.73)	5(7.58)	13(19.70)	
	100만원이상	161(77.40)	7(3.37)	40(19.23)	
가족사항	3세대	50(80.65)	4(6.45)	8(12.90)	3.224
	2세대	196(73.96)	11(4.15)	58(21.89)	
	기타	1(100.00)	0(0.00)	0(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109(83.85)	5(3.82)	16(12.31)	28.204*
	연립주택	15(68.18)	5(22.73)	2(9.09)	
	아파트	125(70.62)	5(2.82)	47(26.55)	
전체계		251(75.6)	15(4.5)	66(19.9)	

\* p<.05

성별로는 남성(79.10%)이 여성(70.86%)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호

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83.05%)가 고졸(73.05%), 대졸(75.25%)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였으나 종교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직업유형별로는 전문직(82.35%)과 회사원(80.77%)이,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77.40%)이 노후의 희망주택유형으로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였다. 가족사항별로는 2세대 동거가족이 노부모, 부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동거가족보다 단독주택을 더 희망하였다.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단독주택을 선호(70.62%)하는 비율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응답자가 노후의 희망주택유형에서도 단독주택(83.8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7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오찬옥, 1993)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표 3).

3)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은 성별과 학력이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시근교(50.85%), 고향(32.20%), 휴양지(10.17%), 도시내(6.78%)순으로 여성은 도시근교(56.08%), 도시내(20.95%), 고향(20.27%), 휴양지(2.70%)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주거환경 조성 지역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연령은 과반수 이상이 도시근교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57.32%), 대졸(54.46%)이 도시근교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중졸이하의 학력에서는 38.98%만이 도시근교를 희망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58.33%), 불교(46.73%)가 도시근교를 희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61.54%), 상업(50.00%), 전문직(52%)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시근교에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회사원은 도시근교(44.87%)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타직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고 고향(35.90%)가까이에 조성하자는 비율이 타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고향(40.00%)과 도시근교(40.00%)가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가족사항에서는 2세대 동거가족(53.99%)보다 3세대 동거가족(49.18%)이 도시근교를 덜 선호한 반면 고향지역(31.15%)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χ <sup>2</sup>
		도시내	도시근교	휴양지(온천, 바다가)	고향	
성별	남	12( 6.78)	90(50.85)	18(10.17)	57(32.20)	23.567*
	여	31(20.95)	83(56.08)	4( 2.70)	30(20.27)	
연령	30대	22(17.60)	68(54.40)	6( 4.60)	29(23.20)	9.602
	40대	21(11.60)	93(51.38)	17( 9.39)	50(27.62)	
	50대	1( 4.35)	13(56.52)	0( 0.00)	9(39.13)	
학력	중졸이하	16(27.12)	23(38.98)	3( 5.08)	17(28.81)	18.750*
	고졸	19(11.59)	94(57.32)	7( 4.27)	44(26.83)	
	대졸	9( 8.91)	55(54.46)	12(11.88)	25(24.75)	
종교	기독교	9(12.50)	42(58.33)	6( 8.33)	15(20.83)	7.720
	불교	31(15.58)	93(46.73)	14( 7.04)	61(30.65)	
	기타	1( 4.76)	14(66.67)	0( 0.00)	6(28.57)	
직업	공무원	4( 6.15)	40(61.54)	3( 4.62)	18(27.69)	13.300
	회사원	9(11.54)	35(44.87)	6( 7.69)	28(35.90)	
	상업	8(13.79)	29(50.00)	6(10.34)	15(25.86)	
	전문직	3(17.65)	9(52.00)	2(11.76)	3(17.65)	
	기타	18(17.65)	57(55.88)	5( 4.90)	22(21.57)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8(20.00)	16(40.00)	0( 0.00)	16(40.00)	9.850
	70~100만원	10(15.15)	34(51.52)	4( 6.06)	18(27.27)	
	100만원이상	24(11.59)	115(55.56)	17( 8.21)	51(24.64)	
가족사항	3세대	7(11.48)	30(49.18)	5( 8.20)	19(31.15)	7.567
	2세대	35(13.31)	142(53.99)	18( 6.84)	68(25.86)	
	기타	1(100.00)	0( 0.00)	0( 0.00)	0( 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15(11.54)	72(55.38)	8( 6.15)	35(26.92)	2.815
	연립주택	4(19.95)	8(38.10)	2( 9.52)	7(33.33)	
	아파트	25(14.29)	93(53.14)	13( 7.43)	44(25.14)	
전체계		44(13.4)	174(52.9)	23( 7.0)	88(26.7)	

\*  $p<.05$

주거유형은 단독(55.38%), 아파트(53.14%) 모두 도시근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시근교가 52.9%로 나타나 도심과 가까우면서 공기가 맑은 곳에서 노후의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순 외, 1985). 따라서 노후의 계획주거 단지를 조성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도시근교인 것을 알 수 있다(표 4).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의 주거 환경 조성방법

		노후의 주거환경 조성방법				r
		기존의 도시내 일반주거 지역 (통합형)	기존의 도시내 노인전용 주거단지 (질충형)	도시근교의 일반주거 지역	도시근교의 노인전용주거 단지 (분리형)	
성별	남 여	32(18.39) 31(20.53)	21(12.07) 12( 7.95)	110(63.22) 99(65.56)	11(6.320) 9( 5.96)	1.630
연령	30대 40대 50대	28(22.40) 33(18.23) 4(17.39)	9( 7.20) 23(12.71) 1( 4.35)	80(64.00) 114(62.98) 17(73.91)	8( 6.40) 11( 6.08) 1( 4.35)	4.267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12(20.34) 29(17.68) 24(23.76)	4( 6.78) 17(10.37) 10( 9.90)	39(66.10) 111(67.88) 59(58.42)	4( 6.78) 7( 4.27) 8( 7.92)	4.140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15(20.83) 42(21.11) 2( 9.52)	7( 9.72) 21(10.55) 2( 9.52)	48(66.67) 122(61.31) 16(76.19)	2( 2.78) 14( 7.04) 1( 4.76)	3.810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13(20.00) 15(19.48) 10(17.54) 4(23.53) 20(19.42)	5( 7.69) 8(10.39) 5( 8.77) 2(11.76) 11(10.68)	43(66.15) 48(62.34) 39(68.42) 9(52.94) 67(65.05)	4( 6.15) 6( 7.79) 3( 5.26) 2(11.76) 5( 4.85)	2.898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9(21.95) 11(16.92) 42(20.39)	7(17.07) 4( 6.15) 18( 8.74)	24(58.54) 45(69.23) 133(64.56)	1( 2.44) 5( 7.69) 13( 6.31)	5.464
가족사상	3세대 2세대 기타	9(14.52) 56(21.37) 0( 0.00)	8(12.90) 24( 9.16) 0( 0.00)	40(64.52) 167(63.74) 1(100.00)	5( 8.06) 15( 5.73) 0( 0.00)	2.907
주거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5(19.53) 3(13.64) 37(21.02)	15(11.72) 4(18.18) 14( 7.95)	83(64.84) 15(68.18) 110(62.50)	5( 3.91) 0( 0.00) 15( 8.52)	7.260
전체	계	65(19.8)	33(10.0)	211(64.1)	20( 6.1)	

\* p<.05

4) 노후의 주거환경조성 방법

노후의 주거환경조성 방법은 변인별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63.22%), 여성(65.56%) 모두 도시근교의 일반주거 지역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응답자의 모든 연령에서 도시근교의 일반주거 지역이 적합하다고 하였지만, 30대에서는 기존의 도시내 일반주거 지역에 노후의 계획주거를 통합하자는 비율이 22.40%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 일수록 도시근교, 도시내에 계획주거단지를 조성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학력, 종교,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사상, 주거유형별 모든 변인에서 도시근교의 일반주거 지역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도시내 일반주거지역에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 19.8%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근교의 일반주거지역(64.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태환, 1990)와도 비슷한 결과이다(표 5).

2.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1) 노부부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규모

노부부 노후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는 학력, 직업 및 월평균 소득에서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37.85%), 여성(39.09%) 모두 21~25평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26~30평도 남성 32.20%, 여성 28.48%나 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47.62%), 40대(32.79%)는 21~25평을 50대(39.13%)는 26~30평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44.07%), 고졸(43.11%)은 21~25평을, 대졸(41.58%)은 26~30평, 종교별로는 불교(40.30%)는 21~25평을 기독교(34.25%)는 26~30평을 노후 부부독립생활에 적합한 평수로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46.13%), 상업(38.98%)이 21~25평을, 공무원(43.08%), 전문직(52.94%)은 26~30평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노부부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노부부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r <sup>2</sup>
		20평이하	21~25평	26~30평	31평이상	
성별	남 여	29(16.38) 32(21.19)	67(37.85) 59(39.07)	57(32.20) 43(28.48)	24(13.56) 17(11.26)	1.761
연령	30대 40대 50대	21(16.67) 36(19.67) 5(21.74)	60(47.62) 60(32.79) 6(26.09)	37(29.37) 57(31.15) 9(39.13)	8( 6.35) 30(16.39) 3(13.04)	12.433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18(30.51) 29(17.37) 12(11.88)	26(44.07) 72(43.11) 28(27.72)	13(22.03) 47(28.14) 42(41.58)	2( 3.39) 19(11.38) 19(18.81)	24.717*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16(21.92) 35(17.41) 4(19.05)	22(30.14) 81(40.30) 11(52.38)	25(34.25) 59(29.35) 5(23.81)	10(13.70) 26(12.94) 1( 4.76)	4.964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6( 9.29) 17(21.79) 17(28.81) 2(11.76) 16(15.53)	21(32.31) 36(46.15) 23(38.98) 2(11.76) 42(40.78)	28(43.08) 16(20.51) 11(18.64) 9(52.94) 37(35.92)	10(15.38) 9(11.54) 8(13.56) 4(23.53) 8( 7.77)	29.228*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12(29.27) 12(18.18) 33(15.87)	21(51.22) 29(43.94) 68(32.69)	5(12.20) 20(30.30) 75(36.06)	3( 7.32) 5( 7.58) 32(15.38)	17.153*
가족사상	3세대 2세대 기타	14(22.58) 47(17.74) 0( 0.00)	26(41.94) 98(36.98) 1(100.00)	14(22.58) 87(32.83) 0( 0.00)	8(12.90) 33(12.45) 0( 0.00)	4.309
주거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5(19.23) 9(40.91) 27(15.25)	54(44.54) 6(27.27) 65(36.72)	34(26.15) 5(22.73) 64(36.16)	17(13.08) 2( 9.09) 21(11.86)	11.396
전체	계	62(18.7)	126(38.0)	103(31.0)	41(12.3)	

\* p<.05

월평균 소득별로는 70만원 미만(51.22%), 70~100만원(43.94%)은 21~25평을, 100만원 이상(36.06%)은 26~30평을 선호해 직업과 월평균 소득별로 노후부부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사항별로 3세대(41.94%), 2세대(36.98%) 동거가족은 모두 21~25평을,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44.54%), 연립주택(27.27%), 아파트(36.72%) 모두 21~25평이 적합하다 하였으나 아파트 거주자 중 26~30평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6.16%나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21~25평(38%), 26~30평(31%)이 노부부 독립생활에 적합한 주택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전명숙(1992)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거규모의 27.7평과 비슷한 연구결과이다. <표 6>.

2) 자녀와 동거시 적합한 주택의 규모

자녀와 동거시 적합한 주택의 규모는 연령, 직업, 월평균소득 및 주거유형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34.46%), 여성(31.54%) 모두 31~35평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연령별로는 30대(32.76%), 40대(40.12%)는 31~35평을, 50대(39.00%)는 41평 이상이 적합한 주택규모라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36~40평을, 종교별로는 31~35평을, 직업별로는 공무원(33.85%), 전문직(41.18%)은 41평 이상을, 회사원(42.31%)과 상업직(37.93%)은 31~35평이 적합한 주택규모라 응답하여 직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70만원 이하 소득자는 31~35평(35.90%), 30평이하(35.90%)를, 70~100만원(42.42%)은 31~35평을, 1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6평~40평, 41평이상 주택이 적합하다 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소 큰 평 수를 원함을 알 수 있다. 가족 사항별로는 3세대(30.65%), 2세대(33.84%) 가구 모두 31~35평을, 주거유형별

로 보면 단독주택(37.25%)은 36~40평이 적합한 규모라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31~35평 33.0%, 36~40평 29.4%, 41평 이상이 24.5%를 차지하고 있어 31~40평이 건강한 노부부가 자녀와 동거시 적합한 주택규모로 나타났다<표 7>.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노부부가 자녀와 동거시 적합한 주택의 규모

		노부부 자녀동거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				F
		30평이하	31~35평	36~40평	41평이상	
성별	남	22(12.43)	61(34.46)	53(29.94)	41(23.16)	0.762
	여	21(14.09)	47(31.54)	42(28.19)	39(26.17)	
연령	30대	15(25.86)	19(32.76)	17(29.31)	17(12.07)	29.918*
	40대	19(11.38)	67(40.12)	46(27.54)	35(20.96)	
	50대	8( 8.00)	21(21.00)	32(32.00)	39(39.00)	
학력	중졸이하	12(20.34)	4( 6.78)	39(66.10)	4( 6.78)	4.140
	고졸	29(17.68)	17(10.37)	111(67.88)	7( 4.27)	
	대졸	24(23.76)	10( 9.90)	59(58.42)	8( 7.92)	
종교	기독교	8(11.11)	22(30.56)	23(31.94)	19(26.39)	5.141
	불교	27(13.50)	68(34.00)	58(29.00)	47(23.50)	
	기타	6(28.57)	6(28.57)	6(28.57)	3(14.29)	
직업	공무원	5( 7.69)	17(26.15)	21(32.31)	22(33.85)	28.174*
	회사원	9(11.54)	33(42.31)	17(21.79)	19(24.36)	
	상업직	14(24.14)	22(37.93)	10(17.24)	12(20.69)	
	전문직	1( 5.88)	2(11.76)	7(41.18)	7(41.18)	
	기타	13(12.75)	32(31.37)	39(38.24)	18(17.65)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14(35.90)	14(35.90)	9(23.08)	2( 5.13)	37.499*
	70~100만원	11(16.67)	28(42.42)	15(22.73)	12(18.18)	
	100만원 이상	15( 7.21)	61(29.33)	67(32.21)	65(31.25)	
가족사항	3세대	14(22.58)	19(30.65)	17(27.42)	12(19.35)	10.783
	2세대	26( 9.89)	89(33.84)	80(30.42)	68(25.86)	
	기타	0( 0.00)	0( 0.00)	0( 0.00)	1(10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16(12.40)	48(37.21)	36(27.91)	29(22.48)	15.190*
	연립주택	8(36.36)	7(31.82)	5(22.73)	2( 9.09)	
	아파트	18(10.23)	54(30.68)	55(31.25)	49(27.84)	
전 세 계		43(13.0)	109(33.0)	97(29.4)	81(24.5)	

\* p<.05

3. 의존단계별 노후의 생활방법

일정한 지역에 노년층의 community를 형성하여 노인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복합형 노인주거에서는 노년층의 건강과 의존정도에 따라 3단계의 프로젝트 즉, 독립주거(independent elderly housing), 노인서비스 주거(hostel), 노인간호주거(nursing home)로 나누어진다(박태환, 1995). 본 연

구에서는 이 3단계 프로젝트에 의하여 의존단계별 노후의 생활계획을 독립생활단계, 반의존생활단계, 그리고 완전의존 생활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독립생활단계에서의 노후의 생활계획

노부부 모두 건강한 독립생활단계에서 노후의 생활 계획은 연령, 학력 및 주거유형이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65.12%)과 여성(69.54%) 모두 기존지역사회내 노부부가 독립생활하기를 희망하였지만 남성의 26.16%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 3세대 동거가족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71.54%), 40대(67.05%), 50대(50.00%) 순으로 기존 지역사회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을 희망하였지만, 50대의 경우 50%가 자녀와 함께 생활에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 할수록 노부부 독립보다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종교, 직업, 월평균 소득과 가족사항 모두 기존지역 사회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2.99%), 단독주택(62.50%), 연립(50.00%) 순으로 기존지역 사회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을 원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지역 사회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67.6%)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 함께 생활(21.4%),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거단지에서 생활(11%) 순으로 응답하여, 앞으로의 노년층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최근 제언되고 있는 3세대 동거형 아파트는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수용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성명옥, 1994). 그러므로 노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생활공간 즉 노인주거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표 8).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독립생활단계에서 노후의 생활계획

		독립생활단계에서의 노후의 생활계획			$\chi^2$
		자녀와 함께 생활	기존지역사회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거단지에서 생활	
성별	남	45(26.16)	112(65.12)	15(8.72)	5.598
	여	25(16.56)	105(69.54)	21(13.91)	
연령	30대	20(16.26)	88(71.54)	15(12.20)	13.850*
	40대	39(21.43)	122(67.03)	21(11.54)	
	50대	11(50.00)	11(50.00)	0(0.00)	
학력	중졸이하	22(38.60)	30(52.63)	5(8.77)	13.321*
	고졸	31(18.67)	118(71.08)	17(10.24)	
	대졸	15(15.15)	72(72.73)	12(12.12)	
종교	기독교	15(21.43)	47(67.14)	8(11.43)	0.302
	불교	47(23.62)	133(66.83)	19(9.55)	
	기타	5(23.81)	14(66.67)	2(9.52)	
직업	공무원	10(15.63)	48(75.00)	6(9.38)	4.402
	회사원	18(23.68)	50(65.79)	8(10.53)	
	상업	14(24.56)	36(63.16)	7(12.28)	
	전문직기타	2(11.76)	12(70.59)	3(17.65)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12(29.27)	24(58.54)	5(12.20)	4.508
	70~100만원	15(23.81)	39(61.90)	9(14.29)	
	100만원 이상	42(20.39)	147(71.36)	17(8.25)	
가족사항	3세대	10(16.39)	42(68.84)	9(14.75)	5.509
	2세대	57(51.84)	178(68.20)	26(9.96)	
	기타	1(100.00)	0(0.00)	0(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37(28.91)	80(62.50)	11(8.59)	11.913*
	연립주택	7(31.82)	11(50.00)	4(18.18)	
	아파트	26(14.94)	127(72.99)	21(12.07)	
전체계		70(21.4)	221(67.6)	36(11.0)	

\*  $p < .05$

2) 반의존 생활단계에서의 생활형태

식사준비, 청소, 목욕지원 등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반의존 단계 일 때의 생활형태에 대해서는 성별만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3.75%), 여성(56.29%) 모두 기존의 주거내에서 생활할 것이라 응답하였지만, 자녀와 함께 생활을 희망하는 남성은 35.8%, 여성은 21.19%로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생활, 연령이 낮아질수록 기존의 주거내에서 필요시 가사조력원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보다 고학력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거나 기존의 주거내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반의존 생활 단계에서의 생활형태

		노후 반의존 생활단계에서의 생활형태				F
		자녀와 함께 생활	기존의 주거내에서 생활(필요시 가사조력원의 도움요청)	노인보호시설 이용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거시설에서 생활	
성별	남 여	63(35.80) 32(21.19)	77(43.75) 85(56.29)	6( 3.41) 2( 1.32)	30(17.05) 32(21.19)	10.727*
연령	30대 40대 50대	28(22.40) 57(31.15) 10(43.48)	71(56.80) 84(45.90) 10(43.48)	2( 1.60) 5( 2.73) 1( 4.35)	24(19.20) 37(20.22) 2( 8.70)	8.035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25( 7.67) 41(24.70) 26(25.74)	22(37.29) 85(51.20) 57(56.44)	1( 1.69) 6( 3.61) 1( 0.99)	11(18.64) 34(20.48) 17(16.83)	10.282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21(29.17) 64(31.84) 4(19.05)	34(47.22) 97(48.26) 13(61.90)	2( 2.78) 5( 2.49) 1( 4.76)	15(20.83) 35(17.41) 3(14.29)	2.732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16(24.62) 25(32.05) 21(36.21) 5(29.41) 27(26.21)	36(55.38) 37(47.44) 21(36.21) 9(52.94) 57(55.34)	2( 3.08) 2( 2.56) 3( 5.17) 0( 0.00) 1( 0.97)	11(16.92) 14(17.95) 13(22.41) 3(17.65) 18(17.48)	9.071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13(31.71) 21(32.31) 58(27.88)	22(53.66) 26(40.00) 108(51.92)	1( 2.44) 1( 1.54) 5( 2.40)	5(12.20) 17(26.13) 37(17.79)	5.103
가족사항	3세대 2세대 기타	15(24.19) 76(28.79) 1(100.00)	32(51.61) 133(50.38) 0( 0.00)	2( 3.23) 6( 2.27) 0( 0.00)	13(20.97) 49(18.56) 0( 0.00)	3.294
주거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47(36.43) 9(40.91) 39(22.03)	57(44.19) 8(36.36) 97(54.80)	3( 2.33) 0( 0.00) 5( 2.82)	22(17.05) 5(22.73) 36(20.34)	10.240
전체	계	95(28.7)	165(49.8)	8(2.4)	63(19.0)	

\* p<.05

직업별로도 기존의 주거내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상업일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36.21%), 기존의 주거내에서 생활(36.21%)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가족사항 및 주거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기존의 주거내에서 필요시 가사조력원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주거내에서 필요시 가사조력원의 도움 요청이 49.8%, 자녀와 함께 생

활하며 자녀의 도움을 받겠다가 28.7%, 그리고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거시설에서 생활하겠다가 19%였다(표 9).

3) 완전 의존단계에서의 보건, 간호서비스 이용방법

완전 의존단계는 거의 드러눕게 되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건, 간호서비스의 이용방법이다. 완전의존단계에서의 보건, 간호 서비스 이용방법은 학력과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집에서 자녀의 간호(36.57%)를 여성의 경우는 집에서 자녀의 간호(27.33%), 노인간호/요양시설에서 생활(26%)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집에서 자녀의 간호나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집에서 자녀의 간호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중졸이하 44.83%, 고졸 27.88%, 대졸 31.68%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가정간호사의 간호(23.03%)와 노인간호/요양시설에서 생활(25.45%)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32.39%, 불교 34.5%가 집에서 자녀의 간호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과 기타에 속하는 응답자는 집에서 자녀의 간호, 병원에 입원, 노인간호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70만원이하의 병원에 입원(40%)을, 100만원 이상은 집에서 간호(30.43%)와 병원에 입원(25.12%)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가족사항별로는 3세대 동거가족은 병원에 입원(31.67%), 2세대 동거가족은 집에서 자녀의 간호(32.58%)를, 주거유형별로는 집에서 자녀의 간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완전 의존단계에  
서의 보건, 간호서비스 이용방법

상 변	남 여	보건간호 서비스 이용방법				χ <sup>2</sup>
		집에서 자녀의 간호	가정간호사의 간호	노인간호/요 양시설에서 생활	병원에 입원	
연령	30대 40대 50대	37(29.84) 60(32.97) 10(43.48)	33(26.61) 28(15.38) 4(17.39)	28(22.58) 45(24.73) 2( 8.70)	26(20.97) 49(26.92) 7(30.43)	3.936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25(44.83) 46(27.88) 32(31.66)	5( 8.62) 38(23.03) 22(21.78)	7(12.07) 42(25.45) 24(23.76)	20(34.48) 39(23.64) 23(22.77)	14.386*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23(32.39) 69(34.50) 5(23.81)	17(23.94) 32(16.00) 5(23.81)	15(21.13) 43(21.50) 7(33.33)	16(22.54) 56(28.00) 4(19.05)	5.081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24(37.50) 22(28.57) 20(34.48) 5(29.41) 35(33.98)	13(20.31) 14(18.18) 13(22.41) 5(29.41) 17(16.50)	15(23.44) 21(27.27) 9(15.52) 4(23.53) 23(22.23)	12(18.75) 20(25.97) 16(27.59) 3(17.65) 28(27.18)	6.473
월 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12(30.00) 29(44.62) 63(30.43)	6(15.00) 10(15.38) 43(20.77)	6(15.00) 14(21.54) 149(23.67)	16(40.00) 12(18.46) 52(25.12)	9.965
가족 사항	3세대 2세대 기타	18(30.00) 86(32.58) 1(100.0)	8(13.33) 57(21.59) 0( 0.00)	15(25.00) 160(22.73) 0( 0.00)	19(31.67) 61(23.11) 0( 0.00)	5.434
주거 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46(35.66) 10(45.45) 51(29.14)	22(17.05) 2( 9.09) 40(22.86)	24(18.60) 4(18.18) 45(25.71)	37(28.68) 6(27.27) 39(22.29)	7.830
전 체 계		107(32.5)	65(19.8)	75(22.8)	82(24.9)	

\* p<.05

전체적으로는 집에서 자녀의 간호(32.5%), 병원에 입원(24.9%), 노인간호/요양시설에서 생활(22.8%), 가정간호사의 간호(19.8%) 순으로 나타나 지금의 중년층들은 노후의 생활계획서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10).

4. 노년층의 계획주거

계획주거란 노년층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건립된 주거(박태환, 1994에서 재인용)로서 노년층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진 주거를 말한다. 노년층의 계획주거는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 노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 주거와 관련된 편의시설 복합유형, 의존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은 월평균 소득과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남성(64.41%), 여성(59.33%) 모두 옥외공간(정원+마당)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 종교, 직업별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으로 옥외공간(정원+마당)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70만원 미만은 옥외공간(정원+마당)(48.78%), 가사작업공간(26.83%) 순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은 옥외공간(정원+마당)(64.42%), 개인생활공간(16.83%) 순으로 나타나 소득별로 중요시 하는 공간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가족사항별로 보면 3세대(66.13%), 2세대(60.75%),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62.31%), 연립주택(61.90%), 아파트(61.58%) 모두 가장 중요시 하는 공간이 옥외공간(정원+마당)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외공간(정원+마당)(61.9%)이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표 11).

〈표 11〉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

상 변	남 여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				χ <sup>2</sup>
		개인 생활공간 (침실, 서재)	사회생활공간 (거실)	가사작업공간 (부엌/식당 다용도실)	옥외공간 (정원+마당)	
연령	30대 40대 50대	23(12.99) 27(18.00)	17( 9.60) 14( 9.33)	23(12.99) 20(13.33)	114(64.41) 89(59.33)	1.681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8(13.56) 23(13.77) 20(20.00)	5( 8.47) 14( 8.38) 11(11.00)	7(11.86) 26(15.57) 10(10.00)	39(66.10) 104(62.28) 59(59.00)	4.132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15(20.83) 26(12.94) 4(19.05)	8(11.11) 20( 9.95) 1( 4.76)	7( 9.72) 29(14.43) 6(28.57)	42(58.33) 126(62.69) 10(47.62)	7.879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10(15.38) 11(14.10) 6(10.17) 4(23.53) 17(16.50)	5( 7.69) 6( 7.69) 5( 8.47) 3(17.65) 12(11.65)	8(12.31) 10(12.82) 11(18.64) 2(11.76) 12(11.65)	42(64.62) 51(65.38) 37(62.71) 8(47.06) 62(60.19)	6.615
월 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7(17.07) 6( 9.09) 35(16.83)	3( 7.32) 10(15.15) 17( 8.17)	11(26.83) 11(16.67) 22(10.58)	20(48.78) 39(59.09) 134(64.42)	13.219*
가족 사항	3세대 2세대 기타	7(11.29) 44(16.60) 0( 0.00)	6( 9.68) 25( 9.43) 0( 0.00)	8(12.90) 35(13.21) 0( 0.00)	41(66.13) 161(60.75) 1(100.00)	1.771
주거 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7(13.08) 3(14.29) 30(16.95)	13(10.00) 0( 0.00) 18(10.17)	19(14.62) 5(23.81) 20(11.30)	81(62.31) 13(61.90) 109(61.58)	5.302
전 체 계		51(15.4)	31( 9.4)	44(13.3)	205(61.9)	

\* p<.05

2) 현재 노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  
 노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은 학력, 월평균 소득이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취업·직업관련시설이 36%인 반면 여성은 취업·직업관련시설 30.41%, 의료시설 31.0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취업·직업 관련시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32.76%), 고졸(37.20%)은 취업·직업관련시설을, 대졸을 취업·직업관련시설(28%)과 여가시설(27%)에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현재 노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

		현재 노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				χ <sup>2</sup>
		주거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 시설)	여가시설 (노인정, 노인회관)	취업, 직업관련 시설	의료시설 (노인 치매병원, 노인병원)	
성 별	남	34(19.43)	45(25.71)	63(36.00)	33(18.86)	7.289
	여	29(19.59)	28(18.92)	45(30.41)	46(31.08)	
연 령	30대	24(19.35)	27(21.77)	42(33.87)	31(25.00)	2.048
	40대	37(20.56)	42(23.33)	58(32.22)	43(23.89)	
	50대	2( 8.70)	6(26.09)	9(39.13)	6(26.09)	
학 력	중졸이하	8(13.79)	14(24.14)	19(32.76)	17(29.31)	5.387*
	고졸	32(19.51)	33(20.12)	61(37.20)	38(23.17)	
	대졸	23(23.00)	27(27.00)	28(28.00)	22(22.00)	
종 교	기독교	19(26.39)	13(18.06)	25(36.11)	14(19.44)	6.579
	불교	32(16.16)	50(25.25)	64(32.32)	52(26.26)	
	기타	6(28.57)	4(19.05)	7(33.33)	4(19.05)	
직 업	공무원	10(15.63)	21(32.81)	22(34.38)	11(17.19)	17.032
	회사원	14(18.42)	14(18.42)	32(42.11)	16(21.06)	
	상업	13(22.41)	10(17.24)	20(34.48)	15(25.86)	
	전문직 기타	7(41.78)	3(17.65)	4(23.53)	3(17.65)	
월 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2( 5.13)	8(20.51)	12(30.77)	17(43.59)	15.382*
	70~100만원	11(16.92)	14(21.54)	27(41.54)	13(20.00)	
	100만원이상	48(23.30)	51(24.76)	63(30.58)	44(21.36)	
가 족 사 랑	3세대	13(21.31)	12(19.67)	20(32.79)	16(26.23)	3.895
	2세대	50(19.16)	60(22.99)	68(33.72)	63(24.14)	
	기타	0( 0.00)	1(100.00)	0( 0.00)	0( 0.00)	
주 거 유 형	단독주택	24(18.46)	27(20.77)	44(33.85)	35(26.92)	3.153
	연립주택	2( 9.52)	6(28.57)	9(42.86)	4(19.05)	
	아파트	35(20.23)	42(24.28)	56(32.37)	40(23.12)	
전 체 계		63(19.3)	75(22.9)	109(33.3)	80(24.5)	

\*  $p < .05$

종교별로는 기독교는 취업·직업관련시설

(36.11%), 주거시설(26.39%), 의료시설(19.44%) 순이었으나 불교는 취업·직업관련시설(32.32%), 의료시설(26.26%), 여가시설(25.2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상업은 취업·직업관련시설을, 전문직은 주거시설에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월평균 소득별로 70만원 미만은 의료시설(43.59%), 취업·직업관련시설(30.77%)을, 70만원~100만원, 100만원 이상은 취업·직업관련시설, 여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항과 주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년층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로는 취업·직업관련 시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취업·직업관련시설(33.3%), 의료시설(24.5%), 여가시설(22.9%), 주거시설(19.3%) 순으로 나타나 취업·직업관련시설이 현재 노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복지시설로 나타났다(〈표 12〉).

3) 노후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된 편의시설의 복합유형

노후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된 편의시설 복합유형은 월평균 소득과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48.67%)이 남성(40.57)보다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의 복합유형을 더 선호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50.81%), 40대(39.34%), 50대(40.91%) 모두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과 젊은층 주택 복합유형을 더 원하였으나, 40대의 경우는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37.16%나 되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41.38%)는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고졸(46.71%), 대졸(46.46%)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의 복합유형에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50.79%)과 기타(50.49%)는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한 유형. 상업(42.37%)과 전문직(41.18%)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선호한 반면 회사원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40.26%)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44.16%)한 유형에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표 13〉노후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된 편의 시설 복합유형

		노후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된 편의 시설 복합유형				F
		노인주택 (기존의 편의시설 이용)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기존의 편의시설 이용)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	편의시설을 갖춘노인주택 과젊은층주택 을 복합	
성별	남 여	10( 5.71) 5( 3.33)	34(19.43) 23(15.33)	60(34.29) 49(32.67)	71(40.57) 73(48.67)	3.022
연령	30대 40대 50대	6( 4.84) 8( 4.37) 1( 4.55)	17(13.71) 35(19.13) 6(27.27)	38(30.65) 68(37.16) 6(27.27)	63(50.81) 72(39.34) 9(40.91)	6.010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6(10.34) 3( 2.99) 3( 3.03)	9(15.52) 31(18.56) 18(18.18)	24(41.38) 53(31.74) 32(32.32)	19(32.76) 76(46.71) 46(46.46)	9.499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4( 5.48) 10( 5.05) 0( 0.00)	12(16.44) 36(18.18) 6(28.57)	20(27.40) 68(34.34) 8(38.10)	37(50.68) 84(42.42) 7(33.33)	4.806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3( 4.76) 4( 5.19) 2( 3.39) 0( 0.00) 4( 3.88)	10(15.87) 8(10.39) 16(27.12) 4(23.53) 19(18.45)	18(28.57) 31(40.26) 25(42.37) 7(41.18) 28(27.18)	32(50.79) 34(44.16) 16(27.12) 6(35.29) 52(50.49)	16.845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이상	4( 9.76) 2( 3.12) 8( 3.86)	9(21.95) 13(20.31) 35(16.91)	12(29.27) 31(48.44) 63(30.43)	16(39.02) 18(28.12) 101(48.79)	13.634*
가족 사항	3세대 2세대 기타	2( 3.23) 13( 4.96) 0( 0.00)	13(20.97) 44(16.79) 0( 0.00)	17(27.42) 92(35.11) 0( 0.00)	30(48.39) 113(43.13) 1(100.00)	3.284
주거 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6( 4.62) 2( 9.09) 7( 4.02)	28(21.54) 3(13.64) 27(15.32)	44(33.85) 8(36.36) 59(33.91)	52(40.00) 9(40.91) 81(46.55)	3.644
전체		15( 4.6)	58(17.6)	112(34.0)	144(43.8)	

\* p<.05

월평균 소득별로는 7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한 유형,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 순이었으나 70~100만원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주거단지(48.44%), 편의시설

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28.12%)한 유형 순으로 나타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족사항과 주택유형별로는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한 유형과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주거시설과 관련된 복합유형은 노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 복합(43.3%), 노인전용 주거단지(34.0%)임을 알 수 있다.〈표 13〉

4) 의존증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의존증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는 주거유형과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사항 및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건강하거나 주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단계는 동일한 건물에서, 완전의존단계는 별도의 건물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독립·반의존 생활단계에서는 동일건물, 완전의존단계에서는 별도의 건물(45.45%), 동일한 건물에서 의존단계별(31.82%)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반의존 생활단계에서는 동일건물, 완전의존 단계에서는 별도의 건물에 연립주택 65%, 아파트 61.40%인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49.2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독립·반의존단계는 동일건물에서, 완전의존단계는 별도의 건물(56.8%)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독립주거에 입주한 거주자가 허약해졌을때에 지속적인 간호서비스나 노인 간호홈에 옮기도록 요청받기 전까지 취사, 세탁, 청소등의 서비스나 개인간호서비스를 독립 거주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호주의 신축보호(Flexi-care) 프로젝트(박태환, 1995)와 같은 모형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14〉.

〈표 14〉 노후생활에 있어서 의존정도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

		의존 정도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			r
		한단지 내에서 의존 단계별로 각각의 건물에서 생활	동일한 건물에서 의존 단계별로 생활	독립·반의존 단계는 동일건물, 완전의존 단계는 별도의 건물에서 생활	
성별	남 여	33(18.86) 30(20.98)	38(21.71) 36(25.17)	104(59.43) 77(53.85)	1.015
연령	30대 40대 50대	22(18.33) 38(21.11) 5(22.73)	24(20.00) 43(23.89) 7(31.82)	74(61.67) 99(55.00) 104(45.45)	2.728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12(21.05) 34(21.12) 19(19.19)	16(28.07) 36(22.36) 20(20.20)	29(50.88) 91(56.32) 60(60.61)	1.732
종교	기독교 불교 기타	10(13.89) 46(23.83) 5(23.81)	19(26.39) 45(23.32) 4(19.05)	43(59.52) 102(52.85) 12(57.14)	3.391
직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전문직 기타	10(15.63) 19(25.00) 12(20.69) 5(29.41) 18(18.00)	13(20.31) 16(21.05) 16(27.59) 2(11.76) 27(27.00)	41(64.06) 41(53.95) 30(51.72) 10(58.82) 55(55.00)	5.901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9(23.08) 16(25.40) 37(18.05)	12(30.77) 12(19.05) 48(23.41)	18(46.15) 35(53.56) 120(58.54)	3.784
가족사항	3세대 2세대 기타	13(22.03) 51(19.69) 0(0.00)	11(18.64) 62(23.94) 0(0.00)	35(59.32) 146(56.37) 1(100.00)	1.548
주거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8(21.87) 3(15.00) 34(19.88)	37(28.91) 4(20.00) 32(18.71)	63(49.22) 13(65.00) 105(61.40)	6.018*
전체		65(20.2)	74(23.0)	183(56.8)	

\* p<.05

V. 결 론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환경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의 주택계획시 기존의 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에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주거환경 조성지역은 도시근교의 일반주거 지역을 가장 선호하였다.
2.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택규모는 노부부 독립생활시 21~30평, 자녀와 동거시 31~40평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존단계별 노후의 생활방법에서 독립생활단계는 기존 지역 시설내에서 노부부 독립생활, 반의존 단계에서는 기존의 주거내에서 필요시 가사조력원의 도움 요청, 완전의존단계에서는 집에서 자녀의 간호를 받겠다고 나타나 지금의 중년층들은 노후 생활계획시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4. 노년층의 계획주거에서 노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은 욕의 공간(정원+마당)이었으며, 노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은 취업·직업관련 시설이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된 편의시설의 복합유형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주택과 젊은층 주택을 복합한 유형이었으며, 의존증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는 독립, 반의존 단계는 동일건물, 완전의존 단계는 별도의 건물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참 고 문 헌

박태환,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계획주거의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_\_\_\_\_, 노년층의 거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4(1), 1994.

\_\_\_\_\_, 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4(1), 1994.

\_\_\_\_\_, 노년건축학, 보성각, 1995.

상형중, 노인과 주거, 산업도서출판공사, 1992.

성명옥, 日本 東京都 실버피어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 서비스 주거의 방향 모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오찬옥, 중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통해 본 한국형 노인주택 대안의 잠재적 효용성, 고령화사회의 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경춘사, 1993.

육선화, 정민자,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1995.

전명숙외, 노인주거에 관한 중년층의 주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1992.

지순 외,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주택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